

**동우컬럼**

대화하라

찬양이 없는 교회가 사막과 같듯, 대화 없는 가정 역시 모래바람만 날리는 사막과 같아 삭막하기 그지없다.

가정에서 대화가 사라졌다. 다들 자기 방식대로 각개전투하며 산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아예 입을 다물고 산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대화하면 싸움만 난다. 그러니 말을 안하는 게 낫다.”이다. 왜 그럴까? 대화를 할 줄 몰라서 그런다.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니 잘해보자고 시작한 일이 역효과만 내고 끝나는 것이다.

대화의 기본은 '경청'이다. 경청(傾聽)이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잠18:13). 야고보 선지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약 1:19)고 당부했다.

남편이나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데,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그 속을 알게 되는데 중간에 툭 잘라버린다. “배부르니까 별 소릴 다하네.”, “해달라는 것 다 해 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러니 아내가, 남편이, 아이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대화의 3대 요소가 있다. 첫째, 상대가 말하는데 앞지르기 없기. 둘째, 상대의 말 자르기 없기. 셋째, 상대가 말하는데 끼어들기 없기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경청'이다. 저수지 바닥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 보려면 저수지 물을 다 퍼내면 되듯,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려면 대화를 해서 퍼내면 된다. 나는 들어주는데 이력이 난 사람이다. 성도들이 상담을 오면 그가 다 쏟아낼 때까지 그냥 듣는다. 그러면 굳이 내가 처방하지 않아도 그가 다 씻음을 받고 간다.

사막에도 오아시스만 있으면 산다. 오아시스가 바로 대화다. 물이 있어야 유실수에서 열매를 딸 수 있는 것 아니겠나. 대화를 해야 가정 안에 행복의 열매가 맺힌다. 대화가 중단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길어지면 원수가 될 뿐이다. 오늘 가족끼리 마주 앉아 대화해보자.

세계를 복음화하자, 가든지, 보내든지!

오늘 필리핀(Philippines) 세부(Cebu)시
세부콜리세움(Cebu Coliseum)에서 막
이 열리는 세부 집회는 지난 20년간 하나
님을 향한 기도와 눈물로 깊이 한 우물을
파온 세부예수중심교회 유상진 목사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 교단의 해외집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되짚어보면, 먼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세계선교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추진하는 목사님과 예수중심교단이 있고, 현지에서 복음의 터를 잡아 계속 불꽃을 피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남미의 이현숙 선교사나 러

을 알린 셈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도 빛도 없이 물질을 대고, 발로 뛰며 헌신하는 사람들, 국내에서 목사님의 해외선교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모든 아름다운 조합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의 대역사를 이루어가신다. 하늘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지난 주일, 목사님은 “우리, 세계를 복음화하자,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구호 같은 제목으로 설교하시며 이번 세부 집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셨다.

“지금 방송광고,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광고, 전단지, 현수막, 유세차 등을 동원한

는지 하라고 여러분을 채근하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사한 곡의 90% 이상을 작곡했던 장우 목사가 소천하셨습니다. 집사 시절 나와 함께 미국 워싱턴 D.C 집회에 갔다가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나를 보고 절하는 사건들을 목격한 후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목사가 되어 일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겁니다.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에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주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 하다 왔냐고 물으시면 뭐라 답할 겁니까? ‘나는 이초석 목사를 도와서 세계선교에 동참했습니다. 물

REV. CORNERSTONE LEE
THE MIRACLE & HEALING CRUSADE IN CEBU
MAY 5(SUN) ~ 6(MON) 6:00 ~ 9:00 PM
CEBU COLISEUM SANCANGCO ST., CEBU CITY
 TEL. 0956-461-8756 PASTOR JOHN 0922-593-7911 CHRISTOPHER PACULABA

REV. CORNERSTONE LEE

2024

시아권의 슬라바 목사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하나님은 여기에 더하여 항상 사람을 준비하신다. 목사님이 항상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기대에 맞춰 꼭 집회의 도화선이 되는 사람을 준비하신다. 이번 세부 집회 같은 경우는 필리핀 한인회 조봉환 회장이다. 작년 세부 집회를 위해 가는 비행기 내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연을 통해 세부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펼치셨다. 짧은 시절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목사님을 통해 되살려, 하나님 앞에 서기 전 마지막 불꽃을 피워보겠다는 열의를 표명한 조 회장을 통하여 이번 세부 집회는 시작되었다. 그는 집회가 열리는 세부콜리세움의 임대료를 먼저 완납하며 집회의 시작

광고가 세부 시내에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선교헌금으로 진행되는 집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여러분의 기도를 믿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40대의 기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여러분의 기도가 밑받침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섰을 때 나 이초석 목사를 도와서 일했다고 당당히 밝히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가는데 손발이 가지 않습니까? 해외집회에 함께 다니는 일행들을 보니까 내가 대통령궁에 가니 함께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일에 직접 발로 뛰는 자나 뒤에서 물질을 대는 자나 기도로 돕는 자나 다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든지, 보내

질을 땀습니다. 기도로 도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은 나를 자랑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에 출발합니다. 다녀올 테니 나와 내 일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합심으로 기도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를 위해 릴레이 금식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대역사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만선의 기쁨을 가득 안고 돌아올 것 또한 확신합니다. **환렐루야!**”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성도 여러분의 합심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은택 목사**

한은택 목사

필리핀 세부 집회

2024년 5월 3일~10일

집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십시오



육체속 고정간첩 귀신을 잡아내라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1:21~39)

제가 해외집회에 나가 설교 도중에 자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회 관계자 몇몇을 단으로 불러올려 그들에게 마이크를 파는 일입니다.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마이크가 백 불입니다.” 하고 상대방에게 백 불을 받고 마이크를 팔고, 다른 사람에게도 백 불을 받고 마이크를 팝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마이크를 팔 때 당신 얼굴을 보고 팔았습니까? 돈 보고 팔았습니까?” 하면 그들 모두는 “돈 보고 팔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당신이 잘 생겨서 마이크를 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많이 배운 사람이라 판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목사라고 판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돈만 보고 팔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모나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또 당신이 처한 환경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믿음만 보고 역사하십니다.”라고 설교합니다.

물속에서 물을 찾는 물고기가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학벌이나 지식, 외모가 아니요, 우리가 처한 환경도 아니요, 우리가 축복과 기적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곧 믿음이 있는가만 보십니다.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날 때부터 거지요, 소경인 바디매 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여기고에 오신다는 소식에 오매불망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신 후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그가 ‘보기를 원하나이다’고 답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막10:52).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인 것과 예수님은 무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선천적 소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 된 자나 한 달 전에 소경 된 자나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와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기록되어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그 여인의 병은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백 방으로 의원을 찾아다니느라 돈도 다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남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 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 섞여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도 볼까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다”(마9:22).

예수님은 “네가 어디가 아프냐? 얼마나 병이 깊었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요? 마가복음 9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한 아버지가 병어리되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잡으려 하자 그가 거품을 물며 넘어지니 제자들이 당황하여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이 행

한 일을 고하며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막9:22)라며 간절히 아들의 병을 고쳐주길 바랍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게 문제입니다. 바디매오처럼,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그 아버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에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아들의 치료가 예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회개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막9:24).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다는, 믿음이 없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루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약속, 또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의 뜻이 뭐니까?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가 아니라 뭐든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가능하시기에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때

문입니다(눅18:27). 그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총회장 이초석 목사

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

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받고 계시고, 여러분이 믿을 것이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주실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주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약1:6~7).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와 일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보셨는지. 아니요, 오직 ‘믿음’만 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무자(無子)한 자에서 민족의 아버지가 된 기적이 믿음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롬4:18~22). 백 세가 된 아브라함,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그의 아내.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낳는 기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문제가 크다, 작다’, ‘이건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이 있다, 없다’만 보십니다. 그러니 문제를 보지 말고 내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히11:6).

하나님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누가복음 18장에 안하무인인 재판관을 늘 찾아가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언젠가는 저 재판관이 내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믿음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를 찾아갔고, 결국 재판관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싸가지없는 재판관도 그 믿음 앞에 흔들렸거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당신 믿음 앞에 흔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과부 같은 믿음을 가지라.’ 하시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18:8) 하십니다. “주님, 제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예수를 만난 후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벼랑 끝에 서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성전 문제도 저는 눈썹만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발 나를, 내 믿음을 본받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찬양과 경배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사랑

우리도 그 발걸음을 따라갑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와라.’ 명하셨습니다. 명을 받은 천사는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며 보니 꽃이 가장 아름다워 보여서 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는 길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 가다보니 꽃이 시들고 볼품이 없어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없기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에 한 아기의 웃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기의 웃음을 가지고 가게 되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어 버리고, 그 웃음이 비열하고 간사한 웃음으로 변해갔다. 천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보았다. 그런데 세상 곳곳에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천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먼 길을 갔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없이 오히려 더욱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의 가정을 심방한 적이 있다. 그 가정은 40세가 넘는 장애우 아들이 있는 가정이었다.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중에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목사님, 제 소원이 있다면 제 아들보다 며칠만 더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아이의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동생에게 짐을 지우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하시며 눈물짓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찡하게

한다. 세상의 모든 어려운 것을 다 담담하고 자식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주고 싶지 않은 부모의 심정인 것이다.

예전에 큰 아이가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때 아이 예방 접종을 위해서 소아과 병원을 찾은 적이 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다가 계단 앞에서 아내가 미끄러져서 아이를 안은 채 무릎을 꿇은 자세로 계단에서 미끄러져 내려갔다. 발목부터 무릎까지 뼈가 다 보이고 살이 찢겨 나갔는데도 아이를 놓치지 않고 안아 버티고, 내가 아이를 받아안고 나서야 잠시 정신을 잃은 적이 있었다. 그때 아내의 모성애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약하고 여린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떤 용사보다도 강한 그 모성애에 지금도 생각하면 감동을 떠나 충격이었다.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짓는 것이 아닐까.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다(출 20:12, 엡 6:1~3). 부모를 공경하면 범사가亨通하고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에게 잘하면 복까지 주신다는 것이다.

가정의 달 5월이다. 부모님께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꼭 한번 안아드리는 사랑을 해드리자.

장영국 목사

2017년도 즈음, 당시 제가 살던 집 방 한쪽에 놓여있던 총회장 목사님의 비디오테이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테이프가 참 많이 있었는데 문득 그 테이프들의 설교 연도와 제목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90년대 테이프였는데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90년대의 테이프 제목이 20년이 지난 2017년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7년이 더 지난 지금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명으로 목회를 시작했던 목사님은 한결같음과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원동력 삼아 지금은 전 세계 70여 개국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총회장 목사님은 어떻게 40여 년의 시간을 한결같이 보내셨을까요? 목사님의 그 비결은 예수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부

터 지금까지 목사님은 계속 예수를 닮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늘 ‘나는 천문천답, 만문만답이 예수다. 목회성공의 비결도, 오늘의 내가 된 것도 모두 예수님의 은혜’라고 대답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를 외치는 목사님을 보는 것만으로 큰 은혜가 되고, 마음의 율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종교인들은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총회장 목사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걷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총회장 목사님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윤에녹 생도
dbstdslgh12345@naver.com



:: 신앙논객 ::

:: 소망의 언덕 ::

두 번은 당하지 말자

어린이날

며칠 전, 대만에서 강도 7.2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1999년에 강도 7.7의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지 25년 만에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물도 거의 무너지지 않았고, 사망자도 10여 명에 부상자가 1,100여 명 정도 나왔을 뿐이란다. 대만 정부와 지자체들이 1999년 지진 이후로 건물의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도 지진 대비 대피훈련을 꾸준히 시킨 덕분이다.

행로법칙(行路法則)이라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는가. 세월과 연륜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간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무엇이 더 올바른 선택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나 또한 신앙생활과 교역자로서의 활동 가운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여자를 주면 안 된다(요새 말로는 ‘플러팅’이라고 함)’,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는 상대에게 분을 내며 책망하면 영혼이 실족해서 떠난다’, ‘사역하면서 편애하거나 내 사람을 만들면 망한다’ 등등... 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는 남들이 하는 걸 보면서 타산지석(他山之石) 내지는 반면교사로 깨달은 것들이다. 총회장 목사님도 목회 초창기 때 서울대 음대생들과 기독교

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데리고 있었다고 종종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삿포론 교훈을 그때 얻으신 건 아닐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 상태가 나빠지는지, 성령 충만이 떨어지는지, 믿음이 약해지는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는가. 다윗도 순간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취했다가 큰 대가를 치른 뒤로는 노년에 신하들이 아리따운 동녀 아비삭을 침소에 넣어 주었지만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단순히 그가 기력이 쇠했거나 젊고 아리따운 여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성 문제로 걸려서 복잡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아서는 아니었을까.

목사님께서 가르시던 개도 지하실에서 한번 쥐뿔에 잘못 걸려 혼쭐이 난 뒤로는 다신 지하실 쪽으로 얼씬도 하지 않더라.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곤 한다. 토한 걸 도로 먹는다는 개도 호되게 당하고 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한 번 당했으면 두 번은 당하지 말자.

신혁주 전도사

어린이라는 단어는 아동 문학가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이’, ‘아기’ 등의 표현으로 불렸던 어린이를 ‘어린이 사람’이라는 의미로 새롭게 정의하여, 어린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923년 5월 1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뜻을 이어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첫 번째 어린이날을 기념했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티 없이 맑고 바르며,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제정된 날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막10:13~16). 또한 예수님은 어린이의 순수함과 겸손함을 가르치셨고(마18:3~4), 공생애 기간 내 어린이들을 참 사랑과 관심을 갖고 살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린이들의 참 행복을 위한 가르침과 그들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밝은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어린이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할 즈음 접한 마음 아픈 뉴스를 접했습니다. 8세 된 어린아이가 밤새 공부하다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곧바로 응급실에 옮겨졌지만 아이는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거두기 전 잠시 의식을 찾았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너무 피곤해, 조금 더 자고 싶어.”였다고 합니다. 소년은 엄마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해왔다는군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만큼이라도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겠다는 뜻을 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따라잡기 위해 하나님을 뒤로한 채 세상의 성공방정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다윗, 그리고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녀들. 그러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이현승 목사

:: 간증 ::

:: 빛이 되리라 ::

귀신이 떠나고 안 보이던 눈이 보입니다



저는 대전예수중심교회를 섬기는 김진수 집사입니다.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간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한쪽 눈도 점 하나 보일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고, 재발을 해서 재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그나마 희끗하게 보이던 한쪽 눈마저 안 보여서 양쪽 눈이 다 안 보이는 깜깜이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는 귀신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군대 귀신이 밤이고 낮이고 나를 괴롭혔습니다. 귀신들이 침대에 나와 같이 눕습니다. 밥을 먹으려면 밥에 침을 뱉습니다. 밥에 살아있는 벌레들을 쏘아뿔습니다. 나의 손을 묶고 귀신들이 있는 산을 밤새도록 끌고 다녔습니다. 내가 소릴 지르고 지팡이로 때려도 꿈쩍도 안 합니다. 내가 어딜 가던지 귀신이 따라다녔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내 집사에게, “나 좀 무당에게 데려다가 이놈의 귀신 좀 쫓아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집사인 아내는 예수를 믿으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우리 부부는 약을 먹고 죽으려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7년 전에 만났던 최정금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보라고 감동을 주셔서 전화했다며 식사나 하자고 했습니다. 최정금 집사님은 기도원에 봄 집회가 있으니 가서 이초석 목사님께 안수를 받자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최 집

사님과 약속하고 함께 40일 작정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역사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 할랄랄랄’ 방언 기도를 따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2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을 받은 표적으로 방언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목사님은 없었습니다. 이역사 목사님은 하나님만이 알아 들으실 수 있는 천국 말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방언이란 말의 뜻은 사투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투리는 배워서 하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하다 보면 새 방언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언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 할랄랄랄’ 하면서 마음으론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새벽에 내 몸이 떨리더니만 내 입에서 랄랄라 방언기도가 너무 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그동안 아무리 소리치고 지팡이로 휘둘러도 꿈쩍도 안 하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방언기도를 안 하면 귀신이 또 들어옵니다. 이역사 목사님은 우리 집으로 심방을 오셔서 야고보서 5장 13~20절 말씀을 주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9장 1~3절, 마가복음 10장 46~52절에 소경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소경이 된 것이다. 나이 80은 숫자에 불과하다. 하나님께 보길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자. 그리고 흑 눈을 뜨지 못해도 실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도님 부부가 하나님을 믿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춘계산상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초석 목사님께서서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시키는 대로 방언기도를 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송도 따라서 불렀습니다. 매시간 은혜로운 말씀에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 때마다 최정금 집사님의 도움으로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습니다. 시간 시간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셋째 날, 저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깜깜했던 내 눈에 내 손금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우리 남편이 보인다고, 귀신도 안 보인다’고 최정금 집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오셔서 ‘눈이 보이고, 귀신은 안 보인다’고 하니깐 너무 기쁘셔서 우시더라고요. 와우~~ 이것이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귀신을 보고 귀신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까? 세상 말로 환장할 노릇입니다. 정말이지 생지옥입니다. 그런데 눈이 보입니다. 귀신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이런 체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산으로 인도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 이초석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대전교회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감사, 감사 올립니다. 할렐루야!

대전예수중심교회 김진수 집사

성산에서의 축복

기도원 집회에 다녀오면 하나님이 늘 선물을 주신다. 이번에도 어김없다. 사실 다른 이유는 별로 없다. 내가 기도원 집회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일보다, 내 사업보다, 내 가정보다 하나님이 여신 잔치가 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여드리고 싶은 것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정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사업도 주셨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이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4월 15일이 시작일이었고, 기도원 집회는 그다음 주였다. 그런데 집회 일정이 한 주 앞당겨졌다. 그래서 사업 시작일과 같은 날이 되었다. 사업을 함께 하는 동업자도 있고 해서 마음이 복잡했다. 런칭일에 바쁠 것이 불을 보듯 뻔해서였다. 잠시 고민했으나 마음을 다잡고 기도원 집회에 가기로 했다. 그리고 동업자를 설득했다. 그동안 내가 기도원 집회 다녀오고 잘 안 풀린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더 좋은 일 주실 거라고 말하며 말이다. 물론 그분도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이다.

그렇게 기도원 집회에 내려갔고, 사업도 시작되었다. 하루 3~5명 정도 들어올 거라 목표를 잡고 시작한 일인데 첫날만 70명이 들어왔다. 고객이 너무 많아 대응이 안 돼서 오히려 그거 해결하는데 더 애를 쓰고 있다. 그 외에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동업자도 그걸 다 보았다. 집회 다녀오고 동업자에게 말했다. “어때요? 이번에도 기도원 다녀오길 잘했죠?”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한다. “어! 잘했어. 잘했어. 맨날 가. 자주 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하시는 걸 우리가 모두 알았다. 이게 내가 이번에 경험한 성산에서의 축복이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 책을 펴다 ::

5월은 푸르구나

5월 5일, 아이들이 일 년을 소망하는 어린이날입니다. 조그마한 머리를 굴려가며 소원을 풀어보고자 갖은 아양을 떠는 모습이 앙증맞고 이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선물을 들려주기 전에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당신은 어린 가슴에 무엇을 안기겠습니까? 그들은 하얀 캔버스일진대 거기에 무엇을 그리겠습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에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이것이 아이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 가치척도가 이때 결정되니까요. 가슴은 차갑고 메마른 채 머리만 키우는 학문만 하게 할 것인가, 돈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배금주의로 채

워줄 것인가. 그 하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자는 우리 어른들입니다. 바라건대, 하얀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줍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그리면 됩니다. 예수의 형상과 마음을 그려 그것으로 채워주면 아이의 인성과 심성이 가장 아름답고 고운 것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그림을 그리면요? 영락없이 아이의 모습에 세상이 묻어나 먼지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면 그림처럼 완벽하며 평온한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길이 아닌 곳에 가지 않으며,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며, 생명이 없

는 것에 유혹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참 아름다움과 참 소망이 숨어 있어 아이의 인생을 푸르게 할 것이며, 파스하게 만들 것이고 창대하게 할 것입니다. 하얀 캔버스에 무엇을 그려줄 것입니까?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신6:6~9).

웅달샘 책 중에서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
(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유튜브 생방송(노랑진 교육관)

문의 02. 533. 9191